

## 추석은 어떻게...성수품 가격급등에 상인도 손님도 '한숨'

8월 소비자물가동향, 전년 대비 3.4% 올라  
 소매가 요동치면서 전통시장도 차차 영향  
 “사과·배 등 주요 성수품 저온 피해 결과”

“작년보다 1000원 내지 2000원은 더 비싸진 것 같아요.”(관련기사 11면)

지난 8월 오후 광주 광산구 송정매일시장. 포도와 사과, 배 등 제철 과일이 청과상 앞에 진열되면서 계절의 변화와 다가오는 명절 분위기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출하 시기를 맞은 샤인머스켓과 머루가 급격히 포장된 상자에 담긴 채 옮겨지는가 하면, 명절을 앞두고 시장에 나온 붉은 빛 홍로와 황금빛 배가 손님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손님들은 북적이는 시장통에서 청과상을 옮겨다니다 최근 가격 상승폭이 큰 것으로 알려진 사과와 배의 가격을 일일이 물어봤다.

한 청과상은 사과 6알이 담긴 소쿠리를 2만 원에 부르거나 하면 시장 깊숙한 곳에서는 10알이 담긴 소쿠리를 같은 가격으로 매기기도 했다. 배도 3알 한 소쿠리 1만 원을 부르는 곳이 있는 반면 4알을 2만 원에 부르는 등 각각

각색이었다.

한 손님은 사과가 담긴 소쿠리로 손을 뻗어 가장 붉은 색 사과를 집어 들더니 껍질 곳곳을 유심히 들여다봤다. 사과를 내려놓고도 한동안 머뭇거리던 이 손님은 상인에게 “반 소쿠리는 안 파느냐고 물었다.

손님들은 추석을 3주 앞두고 열린 5일장에서 명절 물가 상승 폭을 체감했다. 지난 해 추석 직전 당시보다 대부분 1000~2000원 가량 올랐다고 입을 모으며 얇은 지갑에서 지폐 한 장을 더 꺼내는 것을 주저했다. 상인들도 손님들이 꺼낸 지폐를 애처로운 눈빛으로 쳐다보며 ‘손해보는 장사’라고 하소연했다.

요동치는 전통시장 물가의 배경은 최근 발표된 통계청 분석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보다 3.4% 올랐다. 지난 4월(3.7%) 이후 4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이중 과일 물가는 1년 전보다 13.1% 상승해 지난해 1월(13.6%) 이후 최대 오름폭을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전년 대비 사과(30.5%), 귤(27.5%), 복숭아(23.8%), 딸기(20.0%), 수박(18.6%), 밤(16.3%), 참외(10.6%), 파인애플(10.6%) 등 순으로 크게 올랐다.

특히 20대 성수품에 드는 사과, 배 등 가격의 오름폭이 크다.

차레상에 주로 오르는 사과(홍로)의 소매가는 광주 양동시장 기준 10개 2만 9100원으로 전년(3만 1200원)보다 낮지만 도매가는 상품 10kg 기준 7만 7600원으로 전년(4만 9480원)보다 2배 가까이 비싸다.

배(원황) 소매가도 3만 2500원을 기록, 평년 2만 6375원을 훌쩍 넘어선데 이어 도매가는 상품 15kg 기준 5만 3600원으로 전년(4만 3800원)보다 1만원 가까이 올랐다.

농식품부는 올해 3월부터 이어진 저온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누적과 병충해로 주요 과일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상품과 비율도 낮아 도매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고 파악 중이다.

정부는 추석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대 추석 성수품 가격을 작년보다 5%



8일 오후 정남이 들어선 송정매일시장 한 청과상에서 상인과 손님이 과일을 거래하고 있다.

이상 낮은 수준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추석 명절까지 주요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국민들의 체감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4만 9000t의 성수품을 시장에 공급한다.

10일 농식품부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 수급안정 대책반을 구성해 품목별 공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며 “불안 요인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농축산물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슬비기자

### ‘요소수 대란’ 재현 우려 환경부 “충분한 재고 확보”

블룸버그, 中 요소 수출 중단 지시 보도  
 “국내 차량용 요소수 수급 문제 없어”



중국발 요소수 대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국내 차량용 요소수는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고 있으며 요소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관련기사 15면)

최근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정부가 자국 비료업체에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고 보도하면서 2021년 발생했던 요소수 대란이 재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이날 “수출 촉진을 선인한 중국업체(중농그룹)는 화학비료 업체”라며 “차량용 요소수 원료 등에 대한 중국 당국의 포괄적 수출제한 조치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8월말 기준 국내 차량용 요소 재고량은 공공비축분과 민간 재고량을 합쳐 60일분 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9월 중 추가 수입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현재까지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차량용 요소수 유통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업체와 긴밀히 협력해 차량용 요소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향후 수입선 다변화에 대비해 요소수 신속검사 체계 구축 등 선제적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기동취재본부

### “수학여행 노랑버스 문제” 전남은 교육청 전적 책임...광주는 논의 중

일선 학교들 혼란 겪어

전남도교육청이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에 어린이전용버스(노랑버스)를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가운데 광주시교육청도 일선 학교 혼란 최소화를 위해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에 어린이전용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차량을 사용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육청이 책임을 지겠다’고 일선 초교에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김대중 교육감의 지시사항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과정의 참여 기회 보장과

인출 교사들의 부담 해소 등을 위한 조치다.

반면 광주시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버스 이용 계약을 취소해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부담 할 수 있으며 감사 대상이 아니다’고 안내했을 뿐 범칙금·사고 등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아 일선 학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최근 ‘어린이전용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현장체험학습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일반 대형버스를 이용하다 발생한 교통사고 등에 대해서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일선학교들은 2학기 현장체험학습 취소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김대중 교육감의 지시사항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과정의 참여 기회 보장과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노랑버스가 없어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과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도 학교에 있어 당장 체험학습을 준비하고 있는 학교는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시교육청이 발빠르게 대책을 마련해 안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할 경우 학생들이 최대 피해를 입기 때문에 혼란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학기 체험학습·수학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광주지역 초등학교는 187개교이며 전남지역은 186개교로 파악되고 있다.

변용일기자

**담양의 품격**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대숲맑은 담양 청정 자연이 주는 건강한 첫 느낌을 손에서 손으로 직접 전하고 싶습니다.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정직한 농부의 마음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합니다.

담양군·농협경제지주담양군연합사업단